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다

뉴스레터 News Letter 284호 주후 2024년 4월 6일(토)

Your strength will be like iron as long as you live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적인 젊음과 기백을 가지고
우리의 찬양과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곳에 압도적인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쿵쿵 흘러넘치는 부흥의 현상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한계가 있지만 주께서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용량은 커지며,
하나님 앞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후 2024년 4월 5일(금) 오정현 담임목사

사진 : SRC

TODAY'S PRAYER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 1/ 주여! 제22차 봄 글로벌 특새가 영적 대반전을 일으켜 한국교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강력한 공진을 주옵소서.
- 2/ 세우신 강사님(필립 라이켄 목사)과 담임목사님에게 생동력 넘치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 생명력이 충천하게 하옵소서.
- 3/ 특새를 통해 베풀어 주신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김으로 '2033-50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록



첫째 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갈 2:20)
브라이언 채플 목사(커버넌트 신학교 명예총장)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기쁨의 원리이자, 절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야말로 영적 자만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사랑의 팀워크
(전3:16~22, 4:12)
미첼 리 목사(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인정하신 은혜의 순환에 놓여야 합니다.”
“힘든 인생 길에서 우리에게 영가족이라는 관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고후 5:17~)
제이미 듀 목사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변화시키실 것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마 6:33)

박명수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 복음통일

(딤후5:8, 롬9:1~3)

이용희 교수(가천대학교)



“주님의 피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한국교회의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금식과 함께 매일 15분 동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전사건

강준민 목사

“하나님은 광야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역경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여! 하이 프레이즈로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



유수연 집사
(목양6팀 대교구장)

특새 첫날 순장반의 강단초대는 이번 특새로 주께 매달려 나라와 교회와 다락방이 반드시 다시 살 능력을 얻고야 말겠다는 결기 어린 포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여, 겸손과 성숙과 하나님의 순장반이 되게 하소서!

김하엘 어린이
(초등부)



높은 산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강단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로 다짐했어요.



최원철 집사
(남제자서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심을 이번 특새 때 하이 프레이즈를 통하여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영안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희경 자매
(SaGA 예비아카데미)

특새 기간을 통해 문제를 이기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래가 불확실해 불안해하던 저에게 SaGA를 선물로 주셔서 제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고 그릇을 준비시키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길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선옥 집사
(교통섬김부)

주일학교 울동으로만 익숙했던 하박국 3장 17-19절 말씀이 최병락 목사님 설교에서 뜨거운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봄 특새 기간 중 보건소 여직원이 난임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그 직원에게 새 힘과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찬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향할 때 험한 산을 평지처럼 걸으며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 날

예비하는 복음의 능력

(출 21)
새(뉴올리언스 신학교 총장)

“오로 제 방향을 멈추시고,
우셨습니다.”
“감께서 여러분을 구원하
니다.”



불가능을 가능케하시는 하나님

(겔 37:1~6)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루마니아호프교회)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2033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

은혜의 능력

(출 15:22~27)
새(새생명비전교회)

“과운 복을 담아 두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셔서 역전
됩니다.”



역전시키는 은혜의 능력

(룻 1:19~2:3)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내 스스로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침표를 찍으십니다.”
“좁은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Grace)를 받아 특별한 은총
(Favor)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날

세상을 압도하는 거룩한 백성

(출 19:6)
오스 기니스 교수(‘소명’의 저자)

“세속주의를 압도하는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백성,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합 3:17~19, 속 4:6~7)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제보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방향으로만 가면
살게 됩니다.”



예비하신 응답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박선희 집사
(여사역3반)



막막하고 가슴 떨리는 고난 앞에 하
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주
시길 간절히 바라며 특새를 시작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평지처럼
넘도록 능히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내 삶의 최고 가치는 예수님
뵈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호루라
기 힘껏 불면서 하나님께 엎드렸
습니다



김민중 형제
(대학2부)

특새에서 찬양한 ‘주님의 강이’ 찬양을
통해 지쳐있던 나의 맘에 치유의 은혜
를 경험했습니다. 대학부에서 찬양인도
를 하고 있는데, 올려 드리는 모든 찬양
의 가사들이 나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
은혜의 성령권에 올라가 높은 산도 작
게 되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며 기쁨으
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민나 자매
(청년3국)



‘주 보좌로 부터’ 라는 찬양을 힘
차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
는 생명의 물이 온 땅을 뒤 덮는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지금 나
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겪
고있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진호 집사
(교통섬김부)



늘 매사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난 돌이었던 저를
특새 가운데 높은 찬양의 안아주심
으로 사랑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
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길 잃은 어
린 양들을 먹이고 사랑을 베푸는 삶
이 될길 기도합니다.



신영희 권사
(선탑 봉사)

선탑으로 섬기면서 한 분씩 승차하
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반가
워 기쁘게 맞이하게 됩니다. 섬기며
참여하는 특새 가운데 더욱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높은 차
원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리면
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기쁨으로
특새에 참여할 날을 소망합니다.

윤선호 안수집사
(안내총괄팀장)



매일 새벽 기쁘게 안내로 섬기
며 성도님들과 함께 하이프레이
즈로 올려 드리는 기도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
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뜨
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가 주님
께 상달되어서 마침내 ‘2033-50
비전’ 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알림 ON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주제는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2. 강단초대

* 오늘: 영광 · 호산나 · 할렐루야 · 시온찬양대, 대학, 대청, 청년, 기도온

3. 감사소개

* 오늘: 오정현 담임목사(사랑의교회)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다"(신 33:25)
필립 라이켄 목사(휘튼 칼리지 총장)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소서"(시 126:1~6)

4. 특별 간증

윤설미 집사(사단법인 남북통일 코리아 대표 및 헤세드 찬양단 단장)

5. 제22차 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특새감사헌금"

제22차 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주일예배 시 "특새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찬식 예고(4월 7일, 주일)

내일 주일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새 가운데 부어주신 기도와 응답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새 이후 이어지는 성찬예식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묵상하며 성찬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쁨의 잔치

오늘 봄 글로벌 특새 이후 <기쁨의 잔치>가 사랑 글로벌 광장에서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잔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파배기를 준비했습니다. 온 영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8. 주차안내

- 교회주차장
-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토: 새벽 3시~9시 30분까지
- 서초현대주차장 토: 새벽 3시~9시 30분까지
- 국제주차장(구 더바인웨딩) 토: 새벽 3시~9시 30분까지
- * 모든 주차장은 주차 가능시간 이후 출차 시 유료입니다.

9. 은혜게시판 활용

특새 때 받으신 은혜를 '은혜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받은 은혜를 기록하여 나눌수록 갑질의 축복이 됩니다.

한태영 (Solafide50)

십자가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선포하는 특새 첫날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게시판

최성균 (chitjdrbs)

특새 첫날, 안아주심 본당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감동하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과 함께 특새의 문을 여는 첫 찬양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를 부를 때,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유미 (yoomie00)

2003년 40일을 시작으로 전담 중인 22차 봄 특새, 삶의 마침표를 여러 번 찍으려 했던 광야시절에 정말 살고 싶어서 늦둥이를 안고 달려나갔습니다. 특새 때마다 부어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으로 어느새 돌아보니 부어주신 응답과 상상 못할 은혜 안에 살고 있네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포를 알아듣는 귀와 감사한 입도 생겼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최혜현 (chh0716)

한 권사님께서 특새 첫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며 둘째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권사님께 작은 떡을 드리며 감사하다 인사를 드릴 때, 저의 이름을 여쭙보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번 특새에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말라. 너희 가정을 책임져주마." 온 가족이 특새를 향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을 특새 기대하며 이번 특새 기록하자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2024 봄 특새 출석부

여섯째날

제22차 봄 특새는 하늘 문이 열리고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석부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

